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3월 11일(월)

## 윤석열 대통령, 사라 샌더스 美 아칸소 주지사 접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11, 월) 오후 대통령실에서 사라 샌더스(Sarah Sanders) 미국 아칸소주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한-아칸소주 협력 증진, 한인사회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대통령은 6·25전쟁에서 기적같은 ‘인천상륙작전’을 이끈 맥아더 장군의 고향으로 알려진 아칸소주는 한국과 각별한 인연을 가진 곳이라고 말하고, 지난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처럼 한-아칸소주 협력도 다방면으로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아칸소주 역사상 최초의 여성 주지사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샌더스 주지사가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미동맹과 한-아칸소주 관계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샌더스 주지사는 최근의 한미동맹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의 우수 기업들을 방문해 한-아칸소州 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협의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샌더스 주지사는 아칸소州가 리튬 개발의 잠재력이 높다고 하면서, 친기업적인 환경을 갖춘 아칸소州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약 6천5백 명 규모의 아칸소州 한인사회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 커뮤니티로서, 양국 우정과 유대 강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인사회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샌더스 주지사는 아칸소州的 자랑스러운 일원인 한인사회가 한국과 아칸소州를 연결하는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한인사회의 권익 신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끝>